HUES

도시의 밤, 8개의 풍경이 전하는 다정한 밤 인사

NIGHT NIGHT



공연 안내서

2026 제6회 원모어페스티벌 공식 선정작

전석 매진을 기록한 NIGHT NIGHT

"왜 굳이 연극을 보는지 말해주는, 모처럼 연극다운 연극"

— odel***님

"작가님이 누구야... 모든 에피소드가 너무나 재밌었다."

— 이동*님

"회전문 관객에게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갈증을 채워 주는 연극"

— rkdwls***님

"대사가 진짜 맛깔나고 배우분이 그걸 또 너무 잘 살려서 재밌었다."

— bosq**님

"올해 본 연극 중에 가장 빠져들었고, 보고 나서 기분이 좋은 연극이었다."

— 9696**님

도시의 밤을 배경으로 한 옴니버스 연극 NIGHT NIGHT

이 작품은 옥탑방, 마트, 원룸, 모델하우스, 고시원 등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밤을 보내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우습고도 애틋한 삶의 단면을 포착합니다.

누군가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밥을 먹으며,
누군가는 죽음을 고민하는 시간.
그 다양한 밤의 풍경들을 보여주며,
하루를 건너온 이들에게
'나잇 나잇'이라는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작품 소개

극단 휴즈의 〈나잇나잇〉(작 이신혜, 연출 우여진)은 옥탑방, 마트, 원룸, 모델하우스, 고시원 등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밤을 보내는 인물들의 우습고도 애틋한 삶의 단면**을 포착한 **옴니버스 2인극**입니다.

긴 설명 없이도 인물의 감정과 사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흐르는 **밀도 높은 대사**와 우여진 연출 특유의 **배우 중심 연출**을 통해,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팽팽하게 부딪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유쾌한 웃음과 숨 막히는 긴장감, 묵직한 여운으로 풀어내며 하루를 건너온 이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특히 완성된 총 25편의 에피소드(희곡집 1·2권 발간) 중 구성 조합에 따라 공연의 결을 다채롭게 변주할 수 있는 유연한 확장형 레퍼토리로, 1인 2역 구성과 전 배역 더블 캐스팅, 김소희 배우의 특별 출연 등이 맞물려 배우의 해석과 페어 호흡에 따라 매 회차 색다른 무대의 묘미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7월 9편의 에피소드를 선별해 올린 초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제6회 원모어페스티벌 공식 선정작으로 앵콜 공연을 올리며, **쫀쫀한 텍스트의 힘과 배우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연극 본연의 매력을 증명해 낸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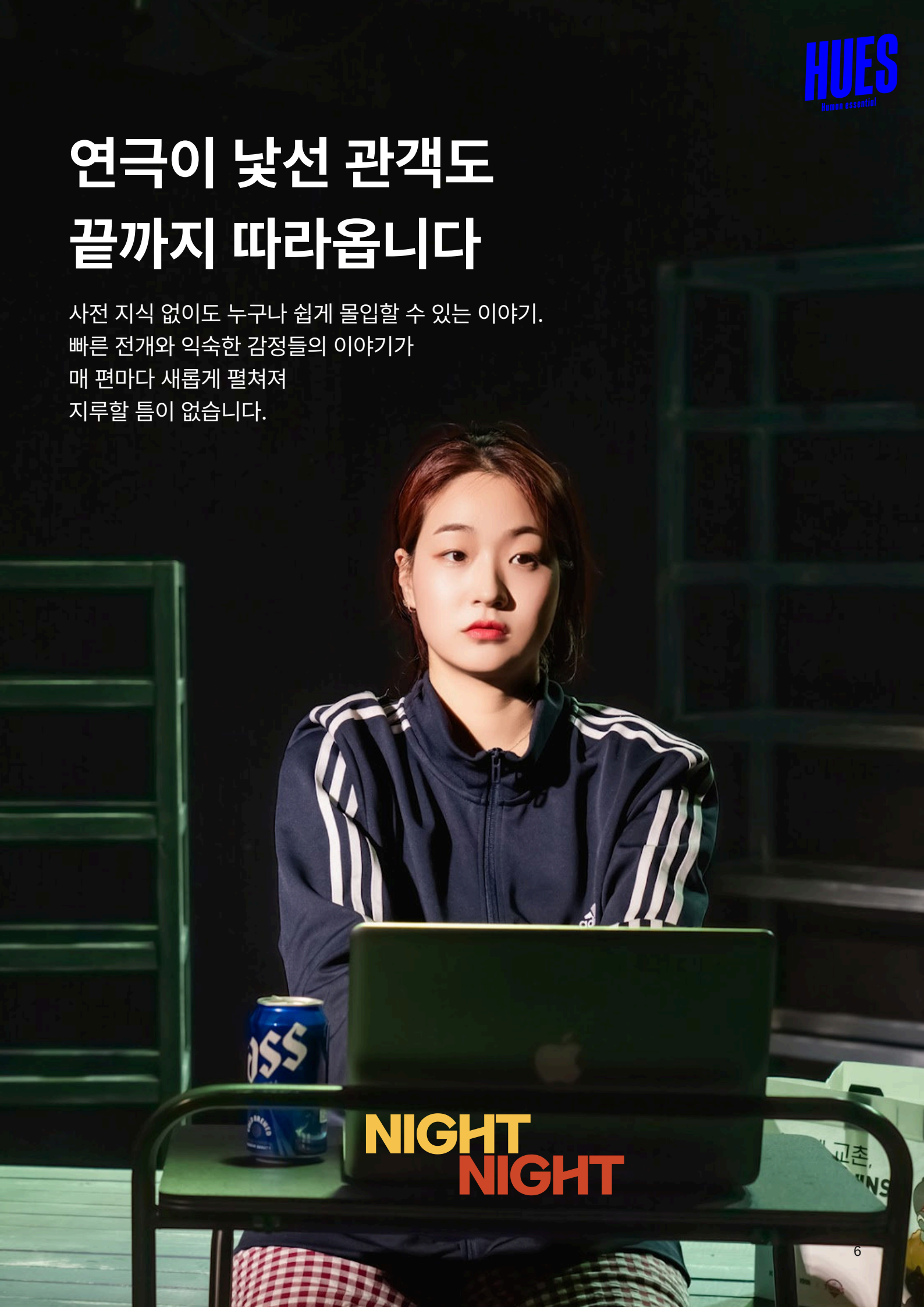
형식	러닝타임	출연	관람등급
10분 2인극 옴니버스 한 회 8편	110분	배우 15명 · 1인 2역 A·B팀 더블 캐스팅	중학생 이상



도시의 밤
8개의 풍경이 전하는
다정한 밤 인사

연극이 낯선 관객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전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
빠른 전개와 익숙한 감정들의 이야기가
매 편마다 새롭게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짧아서 가벼운 게 아니라,
짧아서 꽉 차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 **곧바로 사건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단 10분 안에 **인물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NIGHT
NIGHT

무대에 두 사람뿐

두 배우의 호흡과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작은 몸짓과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는 연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재미

1명의 배우가 완전히 다른 2개의 인물을 연기합니다.
또한 A팀과 B팀의 캐스트가 전혀 다릅니다.
배우마다 다른 해석과 분위기... '아, 이래서 연극이 배우 예술이구나..'
하게 됩니다.

NIGHT
NIGHT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습니다

웃음과 눈물, 서늘함과 온기를 오가는 다채로운 희비극
인생의 여러 얼굴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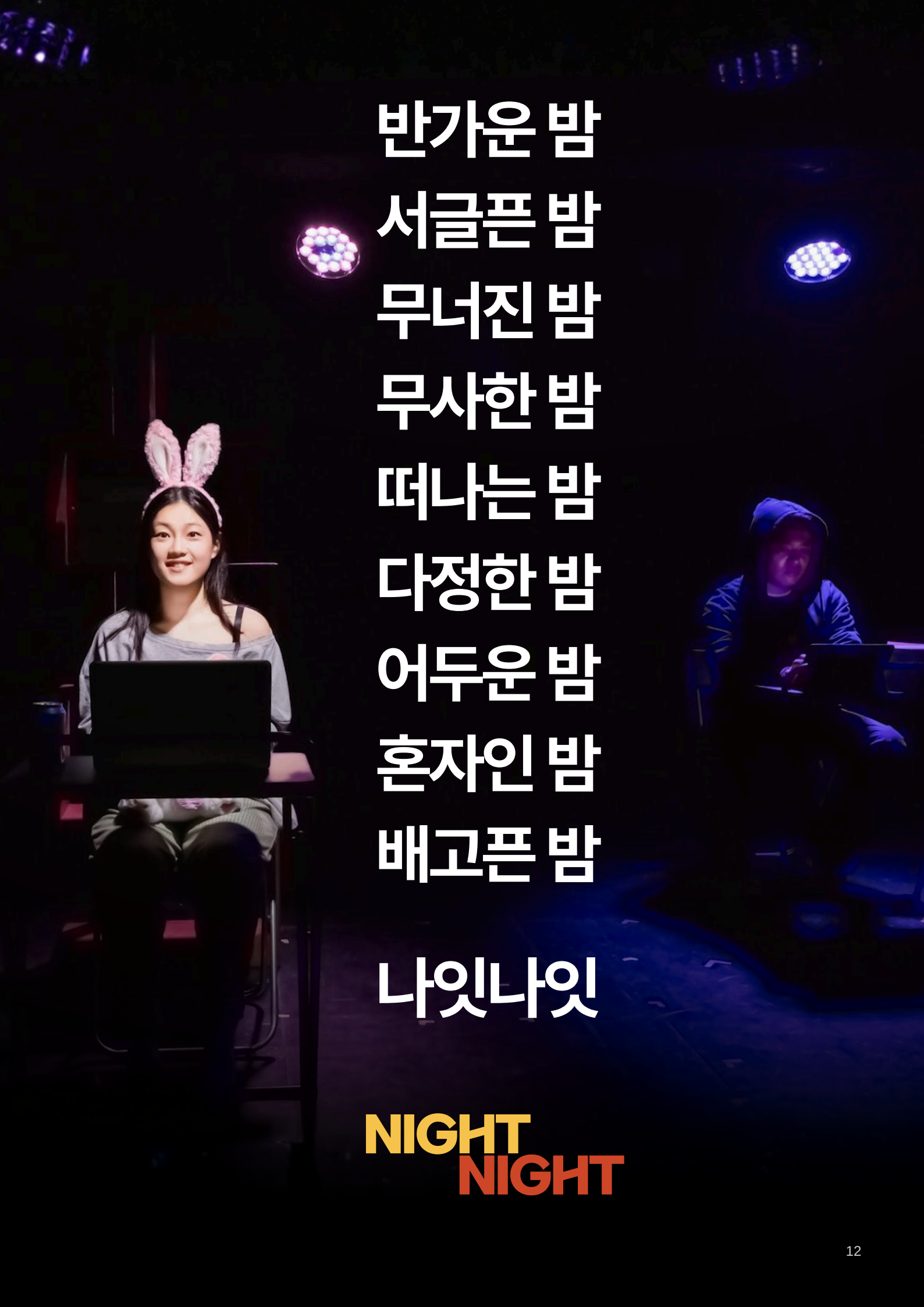
NIGHT
NIGHT



수많은 타인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타인의 삶과 감정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서로 다른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됩니다

NIGHT
NIGHT


반가운 밤
서글픈 밤
무너진 밤
무사한 밤
떠나는 밤
다정한 밤
어두운 밤
혼자인 밤
배고픈 밤
나잇나잇
NIGHT
NIGHT

에피소드

대사 없는 대본

식은 치킨을 사이에 두고, 헤어진 연인이 마주 앉았다

영주 3년째 입봉을 준비 중인 30대 초반 작가, 팍팍한 현실 탓에 방어기제만 잔뜩 높아진 상태

종훈 전직 연극배우이자 현직 보험왕, 눈치 100단 뻔뻔함과 생존력이 무기

헤어졌는데... 왜 아직 서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에피소드

놀이터의 하이힐

가짜 사모님이 배달 기사와 흥정을 시작한다

정희 남편의 빚보증으로 월급이 압류당하기 직전이지만 끝내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상원 배달 노쇼 때문에 20분을 길에서 날린 배달 기사, 극도로 예민하고 날 서 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나요?



에피소드

가성비와 벤츠

언니는 남편의 벤츠를 박살내고, 동생의 원룸으로 숨어든다

혜영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가족의 지갑으로 살다 끝내 폭발한다

혜수 밤새 마감하다 기절하는 프리랜서, 뒷감당은 늘 제 몫이라 믿어온 동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제야 이해한 적 있나요?



에피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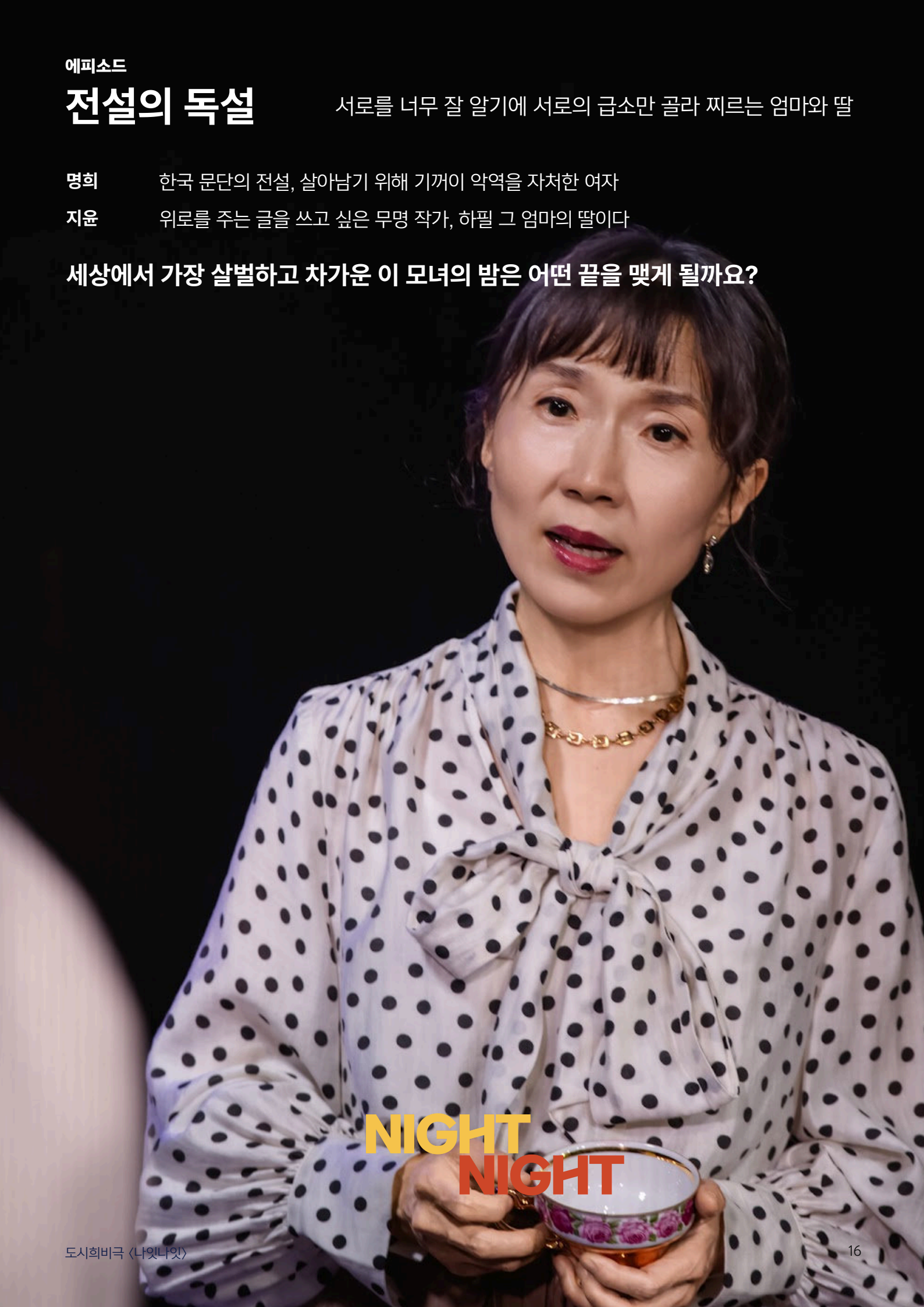
전설의 독설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서로의 급소만 골라 찌르는 엄마와 딸

명희 한국 문단의 전설,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한 여자

지윤 위로를 주는 글을 쓰고 싶은 무명 작가, 하필 그 엄마의 딸이다

세상에서 가장 살벌하고 차가운 이 모녀의 밤은 어떤 끝을 맺게 될까요?



에피소드

이삿짐

이삿짐을 싸며 주고받는 두 무명 배우의 날 선 질투와 오래된 우정

서윤 10년을 버티다 끝내 연기를 접고 낙향하려는 배우

경진 늘 서윤의 그늘에 가려 오디션장에서 '들러리' 서야 했던 동료 배우

이렇게 버티는 거... 맞을까요?



에피소드

마트전쟁

할인매장, 세일하는 텐트를 두고 벌어지는 살벌한 부부 싸움

은주 몽상가 남편에 지칠 대로 지친 현실주의자 아내

상현 만년 과장, 회사에선 치이고 집에선 무시당한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결국 부부는 같은 집으로 걸어갑니다.



에피소드

새벽 4시의 라이브 방송

고시원, 시청자 없는 라이브 방송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미나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방송을 켜 두고 혼자 밤을 견디는 여자

그림자 실패한 과거의 환영 때문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 남자

새벽 4시,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본 밤이 있나요?



에피소드

불 꺼진 모델하우스

특별공연

모델하우스에 몰래 숨어든 여자와
야간 경비원이 마주친다

미란 한때 청담동 사모님, 빈털터리가 됐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여자

태리 모델하우스 야간 보안요원, 미란을 쫓아내려다 그녀의 '연극'에 말려든다

알면서도 모른 척 누군가를 지켜준 적 있나요?



에피소드

엄마 된장국은 짜

특별공연

엄마의 짐을 정리하던 남매
남은 된장으로 끓인 국이 너무 짜다

미선 억척 누나, 입은 걸걸해도 마음은 깊다

진우 별 볼 일 없는 남동생, 뻔뻔함과 투덜거림으로 자격지심을 감춘다

엄마 밥, 그 맛이 문득 사무치는 날 있죠?



NIGHT
NIGHT

말맛으로 감정을 관통하다
극단휴즈의 배우 중심 연출

대사 그 자체로 승부하는 작품들은, 긴 설명 없이도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단숨에 전달합니다.
감정과 사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흐르며,
배우의 입에 쫀쫀하게 달라붙는 텍스트가 극 전체를 힘있게
이끌어갑니다.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부딪히는 우습고 현실적인 인물들.
어떤 순간엔 웃음이 터지고 어떤 순간엔 숨이 막히는
쫀쫀하고 팽팽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새 관객의 마음에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아이>, <갈매기> 우여진의 '배우 중심 연출'이
치열하게 훈련된 신진 배우들의 뜨거운 에너지와 만납니다.

NIGHT
NIGHT

Creative Team

작 — 이신혜

- 영상제작사 더피셔스 감독
- 단편영화 <가출> 인디포럼 신작전, 전북청소년영화제 개막작 등
- 단편영화〈십분만〉
- 단편영화〈세 자매〉 영화진흥위원회·서울영상위원회 제작지원, 교육부장관상
- 웹씨어터 <곰> 등 9편 영상연출, 공연트레일러 30편, 웹드라마 4편, 웹뮤지컬 3편 등
- 2024년 극단 휴즈 창단 〈이 아이〉·〈갈매기〉 제작
- 뮤지컬 〈헤드라인〉 극작, 작사 (홍익대 PBL 창작 뮤지컬 대본 공모전 선정)

연출 — 우여진

- 동아연극상 연기상 2회, 김동훈 연극상, 아름다운예술인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등
-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전임교수
- 극단 휴즈 〈이 아이〉(2024, 조엘 폼므라 작)·〈갈매기〉(2025, 안톤 체홉 작) 각색·연출
- 체홉 단편 〈곰〉·〈청혼〉·〈적〉, 〈운수좋은 날〉, 〈봄봄〉, 〈울고있는 저 여자〉 연출
  〈오레스테스 3부작〉공동연출 등

공연 사진















공연 사진



















공연 사진













단체 소개

극단휴즈 THEATER HUES

극단휴즈는 '인간의 본질(Human Essential)'과 '다채로운 삶의 빛깔(Hues)'을 담아내고자 2024년 5월 만들어진 공연단체입니다.

클래식과 현대극의 조화, 배우 중심, 대중적이면서도 완성도 있는 연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 등, 휴즈만의 미학적 언어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놀이터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즐겁고 의미있는 경험을 누리는 광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혁

2024.5	극단휴즈 창단	
2024.7.27~7.28	<이 아이> 창단공연	플랫폼74
2024.10.29~11.3	<이 아이> — 제2회 자막이 있는 연극제	플랫폼74
2025.2.14~3.3	<갈매기>	제이원씨어터
2025.5.1~5.25	<갈매기> 앵콜공연	씨어터조이
2025.7.15~7.20	<이 아이> 앵콜공연 — 제5회 원모어페스티벌	플랫폼74
2026.7.22~7.26	<나잇나잇> 초연	플랫폼74
2026.9.2~9.6	<나잇나잇> 앵콜공연 — 제6회 원모어페스티벌	플랫폼74

@HUESLAB2024

단체 포트폴리오

<갈매기> 2025



작 안톤 체홉
번역 윤광진
각색·연출 우여진
제작 극단휴즈

2025.2.14~3.3 제이원씨어터
2025.5.1~5.25 씨어터조이 앵콜공연

제이원씨어터 객석점유율 98%
연일 보조석까지 매진
하루 연장공연

공연 이력
2015 서울 초연 (7주간 전회 전석 매진)
2017 재공연 (전회 전석 매진)
2019 부산 공연
2025 극단휴즈 제작



사진 Cine Lee

단체 포트폴리오

<이 아이> 2024~2025



작 조엘 폼므라
번역 임혜경
각색·연출 우여진
제작 극단휴즈

2024.7.27~7.28 플랫폼74 (창단공연)
2024.10.29~11.3 플랫폼74
(제2회 자막이 있는 연극제)
2025.7.15~7.20 플랫폼74
(제5회 원모어페스티벌)

극단휴즈 창단공연
1년 안에 두 차례 앵콜
연속 전석 매진



단체 포트폴리오

<나잇나잇> 2026



작 이신혜
연출 우여진
형식 10분 2인극 옴니버스
제작 극단휴즈

2026.7.22~7.26 대학로 플랫폼74 (초연)
2026.9.2~9.6 대학로 플랫폼74 (앵콜)
2026.9.11 밀양 청학서림 (초청)
2026.12.26 인천 문학씨어터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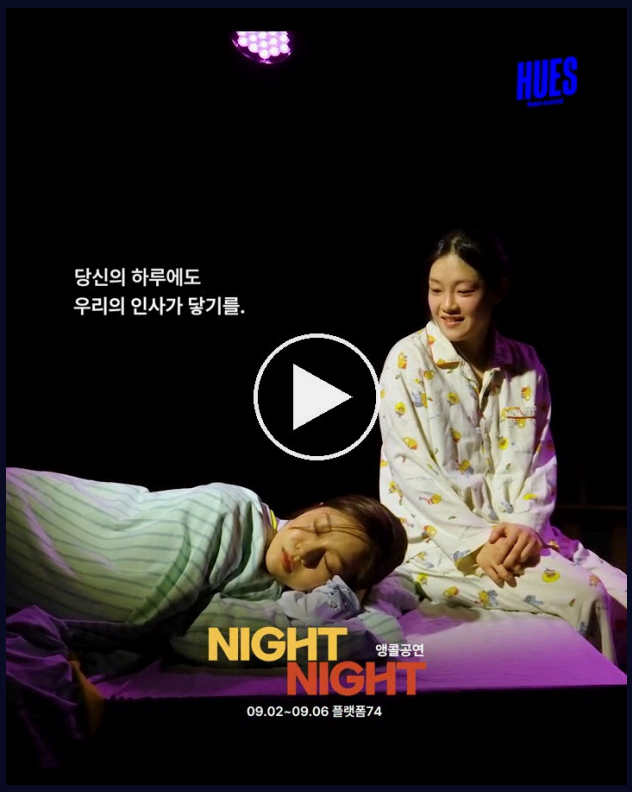
초연 8회 전석 매진
제6회 원모어페스티벌 공식 선정
찾아가는 공연 초청



트레일러 영상



youtube.com/shorts/yIMpPaJQll4



youtube.com/shorts/kSXViadKzpI

극장 초청 공연

풀공연 110분 · 에피소드 8편 구성



형식

10분 2인극 옴니버스
한 회 8편

러닝타임

110분

출연

배우 15명 · 1인 2역
A·B팀 더블 캐스팅

관람등급

중학생 이상

찾아가는 공연

공연 에피소드 중 원하는 것만 골라,
필요한 시간만큼 어디서나 공연 가능합니다.
서점·강당·행사장·기업 문화행사에 맞춰 구성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밀양 청학서림 2층에서 에피소드 2편으로 초청 공연

공연 문의

극단휴즈 대표 이신혜

wesingwetalk@gmail.com

instagram @hueslab2024